

<2022년 4월 27일 수요일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삶을 살아가

[시대 성경]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까지 네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갚는 삶을 살아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보다도 너를 더 사랑하여 위해 주며 살아 주었나니,

그러므로 그 심정을 알고 너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행하며 은혜 갚는 삶을 살아가.

그는 너를 아픔과 고통과 환난의 날에 도우셨고,

영원한 고통의 세계에 가지 않게 해 주셨고,

은혜의 날에 은혜를 주셨고, 사랑할 때에 사랑해 주셨고,

구원의 날에 구원해 주셨고, 가난한 때에 도와 부하게도 해 주셨느니라.

하나님은 성령과 너희를 구하는 자와 함께 은혜를 베푸셨느니라.

[이사야 49장 8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로마서 8장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빛진 자로되,

육신에게 저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 금주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삶>을 살라고 말씀했습니다.

지금 이때,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깨달아야 됩니다.

- 올해 6월 1일이면 <섭리사의 나이>도 ‘44세’가 됩니다.
<섭리사의 신앙들>도 모두 성장되고 장성되어 어리지 않습니다.

<사람>이 크고 장성하면 ‘부모의 은혜’를 갚으며 살아야 하듯이,
<섭리사>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갚으며 살라고 하신 것입니다.

- <하나님의 은혜를 갚으며 살라고 하신 말씀>은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만 하고 갚지 않고 사는 자들>이 있으니,
이제는 모두 <은혜를 갚으며 살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 둘째,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갚으며 살아야,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보람과 목적>을 이루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 셋째,

<은혜 갚는 삶>을 살지 않으면,
‘은혜의 보람’을 못 느끼고, ‘은혜의 가치’도 모르니,
<전능하신 하나님께 받은 크고 큰 은혜>를
귀하고 가치 있게 쓰지 못하고, 헛되이 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같이 써야 제대로 쓰게 됩니다.

<사람의 지능>으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받은 그 크신 은혜>를 제대로 못 씁니다.

<은혜 갚는 삶>을 살면서 써야,

‘그 큰 은혜’를 제대로 쓸 수 있습니다.

- 넷째,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삶을 살라는 말씀>은

<은혜의 생활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 하나님은 <말>로만 ‘은혜’를 주지 않으시고,

<실제>로 ‘은혜’를 주셨습니다.

<시대 말씀>을 주어 구원시켜 주시고,

<병>도 고쳐 주시고, <차 사고>와 <죽을 고비>에서 살려 주시고,

<가난과 각종 어려움>에서 도와주시고, <경제 축복>도 해 주시고,

<자기 자신도,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을 해결해 주시며,

하나님은 <실제>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을 주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실제>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우리도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일’을 해 드려야 됩니다.

- 다섯째,

하나님이 <실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가진 것’이 없으니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도 하나님께 <실제 은혜>를 드려야,

<하나님과 같이 사는 삶>을 살면서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쓰고 사랑하며 살게 됩니다.

고로 <은혜>를 갚으면서 살아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 <지금 예배를 드리는 각 교회>도, <하나님의 자연성전 월명동>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같이 만들어서 드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감격해 하며 받으시고,
우리과 <섭리역사>를 펴 나가시면서
<시대의 목적>을 이루고 기뻐하며 쓰십니다.

- 이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삶>을 살아야,
‘이상세계’를 이루게 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이를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 여섯째,
 <은행의 빛>을 안 갚으면
 ‘집’ 이나 ‘사업체’ 가 넘어가서 없어지게 되듯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안 갚고 살면 ‘신앙’ 을 뺏기고 끝나게 되니,

 <은혜를 갚는 삶>을 살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 <하나님을 사랑하며 같이 사는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갚는 삶>입니다.
- <하나님이 이 시대에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거기에 따라 같이 행하는 삶>이 ‘은혜를 갚는 삶’ 입니다.

 항상 <주 하나님과 성령님과 같이 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기도하여 물어보면,

 하나님도 <이 시대 은혜를 갚는 일>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성령님도 깨닫게 해 주십니다.
- <하나님께 은혜 갚는 삶>을 살면, ‘신앙’ 이 살아나고 부활됩니다.
- <사도바울>도

 ‘우리가 하나님께나 예수님께 빚진 대로 살 것이 아니라,
 복음의 빛을 갚으며 살아야 된다.’ 고 깨닫고,

〈그때 처한 일들〉을 목숨 걸고 행했습니다.

- 우리도

천 년 동안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 마지막으로 〈깊고 깊은 말씀〉,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 드리는 말씀〉을 해 주겠습니다.

-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사람이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모든 인생들〉에게 ‘수천 가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도 모르고,
〈은혜를 갚는 삶〉을 살지도 않다가 죽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아시면서도
〈태양〉을 비추듯, 〈지구〉가 돌듯,
변함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행하십니다.

- 인생들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육 인생, 영 영원토록 사는 목적〉을
이루고 살든지, 이루지 못하고 살든지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을 사랑해 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 기도 중에 하나님께 왜 그러하셨냐고 물어보니,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 여호와〉는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재하고, 영원불변한 존재자’ 다.

〈천지 만물〉과 〈지구〉와 〈인간〉을 창조했으니,

〈전능자〉로서 그들이 나를 사랑하든지, 사랑하지 않든지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 이를 깨닫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심정〉을 알아 드리고 영광을 돌리며,

〈그 은혜를 갚는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를 진정으로 축원합니다.